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김 영 혜**

이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젠더관계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노인부부의 젠더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을 측정하였고,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우울도와 행복감으로 측정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자녀와는 동거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직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남녀노인 476명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보다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노인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 성별 분절현상이 나타난다. 2)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남녀 노인 모두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수준이 일치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3)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노인의 가사노동분담은 심리적 복지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노인의 가사노동분담은 오히려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한다.

핵심단어: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심리적 복지감(PWB), 노년기 젠더

I.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인구변천의 결과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6년 3.7% 수준에 그쳤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는 7.2%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이며, 2004년 2월 전주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기도 하다. 학위논문을 지도해 주신 장상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줄곧 논문에 대해 유익한 충고를 마다 않으신 박경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7%에 달할 것이며, 2020년에는 15.1%로 7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1).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 고령화 사회 및 노인관련 연구가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등의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고령화사회 및 노인에 관한 연구들의 많은 부분이 아직은 고령화사회의 도래나 빈곤노인의 개인적 복지욕구 및 노후부양의 문제 등 일부 주제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노인연구의 주제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노인의 물질적 경제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심리적 측면인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젠더(gender)를 고려하고자 한다. 젠더는 노인들의 부부관계 내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유형지워주는 요인으로 그들의 정신적 건강이나 생활만족, 그리고 행복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노년기의 성역할태도나 가사노동분담 등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결정해 준다. 그것은 노년의 삶이 질적으로 보다 풍요롭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위시한 가족관계가 특히 원만해야 하는데, 평등적 성역할태도와 이런 태도가 반영된 가사노동분담은 원만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년기의 젠더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년기의 젠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지금까지 젠더나 성역할(gender-role)이 젊은 층이나 중년층 남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은 많이 연구되었지만, 이 요인들이 노년기 남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¹⁾ 그러나 부부가 함께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자면, 반드시 노년기에 서로의 역할에 대한 재조

1) 이러한 경향은 달리 표현하면,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은 남녀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젊은 여성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노인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자순(1990; 85)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지만 여성노인은 이러한 관심에서 제외된 느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의 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젊은 여성들의 문제점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운동이 성의 구별과 성의 차별에 대한 논쟁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여성들이 가족부양, 자녀양육, 교육, 경제 및 고용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인들의 성과 연령에 의한 이중차별에 대하여는 아직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²⁾

현재의 노인세대는 대체로 해방 이전에 태어나서 1960년대 ‘근대화’ 시기에 청년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국가주도하에 실시된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유교적 부권주의라는 전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동의 성별분업체계를 급속하게 이루어낸 경향이 있으므로(김현미, 2000), 현재의 노인들은 대체로 가부장적 가족 의식과 이에 따른 엄격한 성역할분리 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불평등한 가족역할이 노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남성이 사회적 노동에서 은퇴한 노후에도 여전히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년기야말로 개인의 생애주기 중 어느 때보다 성불평등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은 노인 개인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전반적인 정신적·심리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이하 PWB)에 초점을 두어, 노년기의 젠더에 따른 가족역할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젠더에 따른 가족역할이 이러한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노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 연구와 노인정책 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질 높은 노년의 삶에서 부부간 역할수행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이 남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를 비교하고, 노인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살펴본다.

둘째,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여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이전 직업, 가족과의 접촉 정도 및 사회적 관계망의 상대적 크기를 규명한다.

2) Havighurst(1972)는 인생에는 시기마다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에는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무엇보다 부부역할에 대한 재조정이라고 하였다.

II.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PWB)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³⁾ 어떤 학자들은 삶에 대한 개인들의 일반적인 주관적·정서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Bryant and Veroff, 1982; Lawton, 1983; Okun, 1987), 다른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생활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강조하기도 한다(Umberson and Gove, 1989).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규정하지만, 이들 공히 심리적 복지감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임에 동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정서적 감정으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개념”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정의한다.

또한 젠더(gender)는 사회에서 남성 및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유형을 지칭하는 개념(Andersen, 2000: 20)인데⁴⁾, 이러한 젠더가 남녀노인의 심리적 복지감(PWB)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젠더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해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에 따른 사회적 관계들이 노년기에도 기대될 경우,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남녀간에 차이가 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남녀노인 모두의 심리적 복지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젠더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의 남녀에게는 매우 다른 경험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복지감

성역할태도(gender-role attitudes)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신념(beliefs)으로 성역할 사회화의 소산이다. 일반적으로 성역할태도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의무, 요구 및 선호 등이 서로 다르다고 믿는 전통적 태도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대적·평등적 태도로 구분된다(장상희, 1991: 6).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태도는 ‘전통적 성역할태

3) Webster 사전에는 ‘복지감(well-being)’을 “건강하고(healthy), 행복하고(happy),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free from want) 상태”라고 정의한다.

4) 젠더(gender)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기대를 나타낸다. 즉 이것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에 반해 성(sex)은 남자(male)와 여자(female)라는 해부학적·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생물학적 정체성(biological identity)을 의미한다.

도'로 규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융통성이 있고 상호 협력하는 태도는 '평등적 성역할태도'로 규정한다.

태도란 인간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반응을 결정짓는 정신과정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사람은 평등한 가사노동분담을 실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평등한 가사노동분담은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년기 이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Mirowsky(1985)와 Pleck(1985)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닐 때, 우울증의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규련(1984)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 때 우울증의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루베르와 그의 동료들(Kluwer, Heesink, van de Vliert, 1997)은 가사역할의 불공평에 대한 인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미국 여성보다도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미국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보다 그러한 불공평에 대해 더 깊이 인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노인세대의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분석 가운데는 한국 남성노인의 성역할태도가 그들의 결혼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신숙과 이경주(1999)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들은 한국 남성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노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고 한다.⁵⁾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년기에는 양성적인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다”고 보았으며(이신숙·이경주, 1999: 8), “노년기의 생활만족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여성적인 역할과 남성적인 역할을 통합한 사고로 평등적인 융통성을 지닐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이신숙·이경주, 1999: 9). 이신숙(1997)도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부부적응을 연구했는데, 노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부부적응의 정도가 미미하나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 않을

5) 그들의 연구에서 종속변인인 남성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여러 독립변인의 영향력 중 성역할태도의 설명력은 8%였다.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종속변인이 결혼만족 및 부부적응 등에만 한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노인의 젠더관계의 한 부분인 성역할태도와 그러한 태도가 반영된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노인들의 전반적 정신건강의 지표인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한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남녀 노인들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가사노동분담에도 적극적인 것이며,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1 : 노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심리적 복지감(PWB) 수준도 높을 것이다.

2. 가사노동분담과 심리적 복지감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가족생활에서는 경제적 부양과 같은 도구적 가족역할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표현적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표현적 역할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도 상대적으로 노년기에 더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기대가 실제 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면, 여성 노인은 삶의 행복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도는 높아지는 등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남성 노인 또한 배우자의 그러한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가 노년기 이전 시기보다 높아짐을 보고한다(Keating and Cole, 1980; Szinovacz, 1980). 또한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Donelson(1977)은 노년기 남성의 성특화된 행동의 감소는 그들과 그들 아내의 복지감(well-being) 수준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키이쓰와 그의 동료들(Keith, Dobson, Goudy and Powers, 1981)도 은퇴한 남성노인이 은퇴하지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남성노인보다 여러 가지 ‘여성적 가사노동(feminine tasks)’와 ‘남성적 가사노동(masculine tasks)’⁶⁾에 더 참여하고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마당청소나, 차관리,

6) ‘여성적 가사노동’이란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들이 담당해온 가사노동 분야를 일컫는 말인데, 음식 준비, 청소, 장보기, 설거지, 세탁과 다림질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매일 걸러서는 안되는 일이며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노동의 강도를 낮출 수도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반면에 ‘남성적 가사노

그리고 집안수리 등의 ‘남성적 가사노동’에 참여할수록 그와 그의 아내의 복지감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가사노동분담이 노인의 복지감을 반드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미국의 Vinick과 Ekerdt(1992)는 노년기 가사노동의 성별분절(gender segregation)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노년기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전통적 여성적 가사노동’(예컨대, 음식장만, 설거지, 청소, 장보기 등)에서 보다는 ‘전통적 남성적 가사노동’(예컨대, 정원 가꾸기 등 마당일, 물건 수리하기, 쓰레기 치우기, 자동차 관리 등)에 한해서만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은 노년기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할애가 젊은 시절에도 주로 남성들이 참여했던 영역에만 국한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단순히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의 증가만으로 가사노동분담이 실현되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것은 오히려 가족 내 가사노동의 성별분절 현상을 심화시킨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노후의 남성 가사노동의 증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추측된다.

김태현과 전길양(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화용과 조병은(1999)도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의 증가와 이것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Donelson(1977)과 Keith 등(1981)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가사노동분담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도 하였고, Vinick과 Ekerdt(1992), 김태현과 전길양(1997), 그리고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담이 단지 특정한 가사영역에 한하여 일어나거나, 혹은 가사노동분담이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였다.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동’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담당해온 가사노동 분야로 마당청소, 집수선, 차관리 등을 가리키는 데, 이것은 편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때로는 거르는 것도 양해되며, 노동의 강도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Coltrane(2000)은 가사노동의 종류를 ‘일상적 가사노동(routine household labor)’과 ‘일시적 가사노동(occasional household labor)’으로 구분하는데, 그는 ‘여성적 가사노동’이나 ‘남성적 가사노동’과 같은 표현은 자칫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성격으로 인하여, 노후에도 가족내에서 평등적인 가사노동분담을 이루어내지 못하며, 나아가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배분이 노인부부 결혼만족도에도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남성노인들도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아내와 공유하게 된다면,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노인 모두가 가족내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복지감도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2 : 노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PWB) 수준도 높을 것이다.

3.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

다음으로 노인의 의식이나 신념으로 구성된 성역할태도와 실제 생활에서의 구현 방식인 가사노동분담의 일치 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인의 태도와 실제 행위간의 일치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자신의 가사노동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ller와 Philliber(1986)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성역할태도가 미국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Ishii-Kuntz와 Coltrane(1992)도 미국 남성들의 성역할태도는 자신의 시간적 여유와 더불어 가사노동참여의 중요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년기 부부의 경우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성역할태도와 실제 성역할 수행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이는 여성노인의 높은 유병율⁷⁾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노년기의 권력관계의 변화⁸⁾에 따라(변화순, 1999) 여성이 남성에게 가사노동 수행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는 비록 남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조사(1998)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남성은 77.4%이고 여성노인은 이보다 높은 92.2%이다.

8) 변화순(1999)은 지난 30년 동안 부부관계의 가치관도 평등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범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평등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가고 있으므로 노년기 부부에서는 부인의 자원이 점점 강화되고 남편으로부터 부인로의 권력 이동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노인의 부부관계가 남성에서 여성중심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성노인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다라도 당면한 현실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실제 성역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이 노후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남편으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분담하게 하거나, 반대로 여성 자신이 평등한 가사노동분담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안일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마지못해 혼자서 가사노동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실제 성역할수행의 일치 여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을 규명하는 것은 유의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태도와 실제 성역할 수행인 가사노동분담과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 로스와 그의 동료들(Ross, Mirowsky and Huber, 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의 노년기 이전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수행의 일치여부에 따라서 결혼생활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과 우울정도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부부 모두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가정생활도 이와 일치되게 꾸려 가는 형태이다. 즉 아내는 취업을 원치 않으며, 취업하지 않았고, 또한 남편도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형태이다. 둘째 유형은 부부 모두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어 남편의 가사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적 필요 때문에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은 부부 모두가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고, 아내는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가사참여는 미흡하여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책임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형은 부부 모두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는 취업했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분담을 실천하는 결혼생활이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로스와 동료들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일치여부

| 성역할태도 \ 실제 행위 | 전통적 가사분담 | 평등적 가사분담 |
|---------------|----------|----------|
| | 전통적 태도 | 첫째 유형 |
| 평등적 태도 | 셋째 유형 | 넷째 유형 |

출처: Ross et al.(1983)

이상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성역할태도와 성역할 수행이 불일

치하는 경우인데, 그들은 이 때 부부 모두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네 번째 유형의 부부들의 우울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로스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산출된 유형을 기초로 하여 남녀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그것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녀 노인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수행의 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표 2>참조).

〈표 2〉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 유형

| | | 성역할태도 | |
|----------|----|-------|-----|
| | | 평등적 | 전통적 |
| 가사노동분담정도 | 높음 | 유형1 | 유형2 |
| | 낮음 | 유형3 | 유형4 |

주: 일치 유형: 유형1과 유형4
 불일치 유형: 유형2와 유형3

유형 1은 남녀노인 모두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 가사노동분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다. 이 유형은 성역할태도와 실제행동이 일치하는 경우로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 2는 남녀노인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간에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도 태도와 실제행동이 불일치하는데, 전통적인 사고를 가졌으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형 3은 남녀노인 모두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와 다르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간에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의 성역할태도는 평등적이지만 그러한 태도를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그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노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경우 전형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이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사노동마저 분담하지 않는다면, 여성노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유형은 남녀노인 모두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부간에 가사노동분담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는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로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3 :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실제 가사노동분담이 일치될수록 심리적 복지감(PWB)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Ⅲ. 자료 및 측정

1.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2003년 8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자녀와는 동거하지 않으며, 직업에서 은퇴한 남녀노인 500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할당표집 방법(quota sampling method)을 통해 이루어졌다⁹⁾.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2년 12월말 현재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나타난 65세 이상의 254,642명의 노인들의 지역별(16개의 구군), 성별(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별(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 인구수를 기입한 표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전체 부산지역 노인인구수에 대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범주화된 표의 각 칸(cell)의 노인인구수의 비율을 계산한 다음, 각 칸의 구성비에 따라 노인들의 수를 할당하여 그 칸의 특성을 가진 노인들을 500명 선정하였다.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정아(1997)와 장상희(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의 4점 척도로 10개의 문항이 최종 척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문항들의 크론바하의 알파값은 .808로 매

9) 본 연구에서는 원래 확률표집인 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표본의 특성(유배우자로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직업이 없는 65세 이상의 남녀)상, 표본의 틀(sampling frame)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과 경비로 인해 할당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본 표본에 한정하여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¹⁰⁾

다음으로 가사노동분담은 이미숙(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기초로 측정하였다. 가사역할은 식·의·주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언제나 부인이 하고 남편은 전혀 안한다’,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은 가끔 한다’, ‘부부가 서로 비슷하게 한다’, ‘주로 남편이 하고 부인은 가끔 한다’ 및 ‘언제나 남편이 하고 부인은 전혀 안한다’의 5점 척도로 15개의 문항이 최종 척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문항분석의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926으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심리적 복지감(PWB)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은 행복감, 우울도, 생활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이다(Baruch and Barnett, 1986; Bryant and Veroff, 1982; Pina and Bengtson, 1993; Lawton, 1983; Umberson and Gove, 1989).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부정적 측면인 ‘우울도(depression)’와 긍정적 측면인 ‘행복감(happiness)’을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이 가운데서 우울도는 움버슨과 그의 동료들(Umberson et al., 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과 이종범과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조하였고,¹¹⁾ 행복도는 행복의 정도에 대한 단일 문항¹²⁾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의 문항분석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는 .841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¹³⁾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 중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부호화하여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0점),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1점),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2점),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3점), ‘2년제 대학 졸업(중퇴포함)’(4점) 및 ‘4년제 대학 졸업(중퇴포함)’(5점)의 여섯 단계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 나쁨’을 0으로, ‘건강 좋음’을

10) 성역할태도의 점수는 가장 전통적인 10점에서 가장 평등적인 40점 사이에 분포한다.

11) 우울도를 나타내는 9개 문항은 ‘나는 우울하다’, ‘나는 갑자기 울고 싶거나 자주 눈물이 난다’, ‘나는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일찍 깬다’, ‘나는 전과 다름없이 식욕이 있다’(역점수), ‘나는 안절부절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나는 삶의 의미를 느낀다’(역점수), ‘내가 죽어야 남들이 편할 것 같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이다. 이 문항들은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나타났다.

12) 행복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르신께서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나타났다.

13) 심리적 복지감은 가장 심리적 복지감이 낮은 10점에서 가장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40점 사이에 분포한다.

1로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소득수준은 ‘0-20만원 미만’(1점), ‘20-50만원 미만’(2점), ‘50-100만원 미만’(3점), ‘100-200만원 미만’(4점), 그리고 ‘200만원 이상’(5점)의 다섯 단계로 측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던 이전 직업은 회귀분석을 위해 두 개의 가변수로 재구성하였다.¹⁴⁾ 가족접촉도¹⁵⁾의 4개 문항과 사회적 관계망¹⁶⁾의 5개 문항은 각각 ‘내왕이 전혀 없음’(0점), ‘1년에 1-회’(1점), ‘몇 달에 1-2회’(2점), ‘월 1-2회’(3점), ‘주1-2회’(4점), 그리고 ‘거의 매일’(5점)의 다섯 가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접촉도 점수는 0-20점 사이에, 사회적 관계망은 0-25점 사이에 분포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별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비교

(1) 성별 성역할태도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향하는 응답을 한 노인의 비율을 통해 남녀노인간의 성역할태도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 문항에서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는 응답(각 문항에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37.8%로 나타났고, 63.2%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성역할태도가 대체로 전통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몇몇 선행연구(이신숙, 1997; 장상희, 1999)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전체 성역할태도 문항의 평균값은 남자 22.3점(표준편차 4.3), 여자 23.8점(표준편차 4.0)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별 백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31.8%,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41.8%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14) 전문직, 경영·관리직, 기술직 및 사무직은 중·상층직업으로 하여 이전직업1로, 농·림·어·축 산업, 자영업, 생산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하위층직업으로 규정하여 이전직업2로, 그리고 전업주부는 이전직업3으로 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전직업1의 경우에는 중상층직업=1, 그렇지 않은 경우=0; 이전직업2의 경우는 하층직업=1, 그렇지 않은 경우=0; 그리고 이전직업3은 전업주부=1, 그렇지 않은 경우=0으로 부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직업3인 전업주부를 분석에서 생략되는 기준집단으로 취급하였다.
- 15) 가족접촉도는 ‘자녀만남’, ‘자녀 연락(전화나 편지 등)’, ‘형제나 자매 만남’, ‘형제나 자매 연락’의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16) 사회적 관계망은 ‘종교기관 방문’, ‘종교 활동’,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전화 등)’, ‘봉사활동(통반장, 자원봉사활동) 빈도’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있어,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의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alpha=.001$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t=-4.00$). 여성들의 역할태도가 남성들보다 더욱 평등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많은 다른 연구결과(서동인, 1985; 이정연, 1982; 최규련, 1984; Scanzoni and Fox, 1980; Stevens et al., 2001)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성역할태도에 대한 남녀노인의 응답비율 (평등적 태도 응답 %)

| 문항 | 전체(%) | 남(%) | 여(%) |
|---|-----------|-----------|-----------|
| 가족영역 | | | |
| 1.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가족사항은 남편이 결정을 해야 한다. | 41.6 | 36.6 | 44.9 |
| 2.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 56.9 | 52.4 | 60.0 |
| 3. 비록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정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 54.6 | 51.3 | 56.9 |
| 4.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 19.5 | 16.8 | 21.4 |
| 5. 아내가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부양은 남편의 책임이다. | 30.0 | 20.9 | 36.1 |
| 소 계 | 40.5 | 35.6 | 43.9 |
| 직장영역 | | | |
| 6.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 45.4 | 39.8 | 49.1 |
| 7. 직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 29.4 | 22.5 | 34.0 |
| 8.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능력이 뛰어나다. | 46.6 | 35.1 | 54.4 |
| 9.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31.2 | 26.3 | 34.4 |
| 10. 여자의 최고 미덕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 | 22.9 | 16.8 | 27.0 |
| 소 계 | 35.1 | 28.1 | 39.8 |
| 합 계 | 37.8 | 31.8 | 41.8 |
| 전체문항 평균값(표준편차) | 23.2(4.2) | 22.3(4.3) | 23.8(4.0) |
| t 값 | | | -4.00*** |

주: 1) 이 표에 제시된 %는 각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것으로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 $p < .001$

성역할태도의 남녀노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영역(평등적 성역할태도 응답이 남성노인 35.6%, 여성노인 43.9%)과 직업영역(평등적 성역할태도 응답이 남성노인 28.1%, 여성노인 39.8%) 양쪽 모두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남성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항5의 '아내가 직업이 있더라도 가족부양은 남편의 책임이다'

에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남성노인 20.9%, 여성노인 36.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도 도구적 역할은 남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형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문항인 문항4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남성노인의 16.8%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어, 대다수의 남성노인들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노인도 이 문항에서는 21.4%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비록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전반적인 성역할태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성별분업에서만은 여성노인들도 매우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졌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성역할태도가 더욱 전통적이라는 사실은 성역할태도의 직업영역 관련 문항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항10 ‘여자의 최고 미덕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와 문항7 ‘직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에서 평등적 성향을 나타내는 응답은 각각 22.9%와 29.4%에 그치고 있어서, 노인들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으로 지향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문항8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항목에는 여성노인의 경우 과반수가 약간 넘는 54.4%가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남성노인은 35.1%만이 같은 응답을 하고 있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에 성역할태도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항6인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에도 여성노인의 과반수 가까운 49.1%가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남성노인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39.8%만이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녀노인 모두 그들의 성역할태도는 대체로 전통적인 경향이 있으며,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고, 남녀 노인 모두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양쪽 영역 중에서 가족영역보다 직업영역에 있어 더욱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17) 성역할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가정영역과 직업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구분은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로 인한 것이다.

(2) 성별 가사노동분담

노인들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표 4>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한 영역은 ‘밥하기’, ‘반찬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냉장고·싱크대 정리’, ‘장보기’, ‘빨래(세탁기 포함)’, ‘다림질’ 그리고 ‘의류 구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부자리 준비’, ‘방과 마루 청소’, ‘화장실 청소’, ‘집안 정리정돈’,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재활용 포함)’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집안수리(전구교체, 못 박기, 전기수선 등)’이다. 이들 중 첫 번째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던 가사노동 분야이고, 두 번째 영역은 주로 부부가 비슷하게 하는 가사노동이며, 세 번째 영역은 남성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가사노동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던 가사노동은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찬 만들기’의 경우는 응답자의 92.4%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가사노동 중에서 ‘의류구매’(23.0%), ‘상차리기’(18.3%), 그리고 ‘빨래’(15.4%)는 다른 항목보다 부부가 비슷하게 수행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가 비슷하게 참여하는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남편보다 부인이 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부자리 준비와 정리하기’(부인이 함 58.4%, 남편이 함 11.6%), ‘방과 마루청소’(부인이 함 61.7%, 남편이 함 10.0%), ‘화장실 청소’(부인이 함 65.6%, 남편이 함 11.3%), ‘집안 정리정돈’(부인이 함 68.1%, 남편이 함 8.9%)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부인이 함 48.6%, 남편이 함 26.4%)의 경우는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져 온 ‘집안수리’(남편이 함 75.3%, 부인이 함 14.3%)의 경우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았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던 가사노동 영역과 부부가 서로 비슷하게 하는 가사노동 영역, 그리고 남성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가사노동 영역을 모두 포함한 전체 가사노동 영역에서 부인이 전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반찬 만들기’(92.4%)이고, 남편이 전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집안수리’(75.3%)였으며, 부부가 비슷하게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이부자리 준비와 정리하기’(30.0%)였다.

이상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사노동 내에서도 사회적 노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분절(gender segreg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4〉 노인부부 가구의 가사노동분담 실태

| 항 목 | 전체 (N) | 부인이 함(%) | 비슷하게 함(%) | 남편이 함(%) |
|---------------|--------|----------|-----------|----------|
| 밥하기 | 471 | 86.8 | 11.3 | 1.9 |
| 반찬 만들기 | 471 | 92.4 | 5.7 | 1.9 |
| 상차리기 | 471 | 79.4 | 18.3 | 2.3 |
| 설거지 | 471 | 84.1 | 13.0 | 3.0 |
| 싱크대·냉장고 정리 | 470 | 88.1 | 9.1 | 2.8 |
| 빨래(세탁기 포함) | 468 | 81.2 | 15.4 | 3.4 |
| 다림질 | 465 | 86.7 | 10.8 | 2.6 |
| 장보기 | 471 | 89.2 | 8.1 | 2.8 |
| 의류구매 | 470 | 72.1 | 23.0 | 4.9 |
| 이부자리 준비와 정리하기 | 474 | 58.4 | 30.0 | 11.6 |
| 방과 마루청소 | 468 | 67.1 | 22.9 | 10.0 |
| 화장실 청소 | 468 | 65.6 | 23.1 | 11.3 |
| 집안 정리정돈 | 470 | 68.1 | 23.0 | 8.9 |
| 쓰레기 버리기 | 469 | 48.6 | 24.9 | 26.4 |
| 집안수리 | 469 | 14.3 | 10.4 | 75.3 |

주: 이 표에 제시된 '부인이 함'의 비율은 '항상 부인이 하고 남편은 안함'과 '주로 부인이 하고 남편은 가끔 함'의 값을 합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슷하게 함'은 '부부가 서로 비슷하게 함'의 비율이고, '남편이 함'은 '주로 남편이 하고 아내가 가끔함'과 '항상 남편이 하고 부인은 안함'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3)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여부

다음으로 노인들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는 본 조사에서 나타난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 네 가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4가 37.7%로 가장 많고, 유형1과 유형3은 22.0%, 그리고 유형2가 18.3%로 나타났다. 이것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유형4와 유형2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1과 유형3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9.80, p<.001$). 즉, 남성노인들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낮은 유형과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은 유형이 많아서 가사노동분담 수준에 상관없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노인들은 평등적 성역할태도에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낮은 유형과 평등적 성역할태도에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은 유형이 많아서 가사노동분담 수준에 상관없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 구 분 | 전체 (%) | 성별 | |
|-----|----------------|----------------|----------------|
| | | 남성 | 여성 |
| 유형1 | 22.0 | 18.8 | 24.2 |
| 유형2 | 18.3 | 21.5 | 16.1 |
| 유형3 | 22.0 | 13.3 | 27.8 |
| 유형4 | 37.7 | 46.4 | 31.9 |
| 계 | 100.0 (454) | 100.0 (273) | 100.0 (181) |

($\chi^2 = 19.80$ d.f. = 3 $p < .001$)

〈표 6〉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유형

| 유형 | 성역할 태도 | 가사노동 분담 정도 | 심리적 복지감 평균점수 | F값 |
|-----|-----------|---------------|--------------------|-------|
| 유형1 | 평등적 | 높은 분담 | 47.9 | 2.69* |
| 유형2 | 전통적 | 높은 분담 | 45.5 | |
| 유형3 | 평등적 | 낮은 분담 | 46.8 | |
| 유형4 | 전통적 | 낮은 분담 | 48.3 | |

- 주: 1) 평등적 성역할태도는 성역할태도 점수(10-40점) 24점 이상이고,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성역할태도 점수(10-40점) 23점 이하이다.
2) 높은 분담은 가사노동분담 점수(0-15점) 8점 이상이고,
낮은 분담은 가사노동분담 점수(0-15점) 7점 이하이다.
3) * $p < .05$

그리고 <표 6>에서 보듯이,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평균값은 유형4의 경우 48.3점, 유형1은 47.9점, 유형3은 46.8점, 그리고 유형2는 45.5점 순으로 나타났다($F=2.69$). 즉,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되게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하는 유형1과 유형4의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가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2와 유형3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네 가지 유형들의 심리적 복지감 점수의 차이는 $\alpha=.05$ 이상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수행 간의 일치 여부와 우울도간의 관계를 연구했던 로스와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수행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부부 양쪽 모두의 우울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네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불일치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들이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5>에서 보듯이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이 불일치하는 남성노인은 34.8%(21.5%+13.3%)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43.9%(16.1%+27.8%)에 이르고 있다.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들이 더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불일치를 경험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남성노인들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가사노동의 분담정도도 낮은 반면, 여성노인들은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생활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2. 심리적 복지감의 결정요인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알아보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경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과 통제변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 7>을 통해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부터 알아보면, 모든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들이 다같이 심리적 복지감을 31.0% 설명

<표 7>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결과

| | 성역할태도 | | 가사노동분담 | | 심리적 복지감 | |
|----------------|---------|--------|---------|--------|---------|--------|
| | β | t | β | t | β | t |
| 1. 성별 | -.192** | -3.296 | .072 | 1.227 | .039 | .761 |
| 2. 연령 | -.119* | -2.488 | .114* | 2.361 | .010 | .244 |
| 3. 교육수준 | .069 | 1.101 | .109 | 1.723 | .050 | .911 |
| 4. 건강상태 | .020 | .414 | .105* | 2.135 | .317*** | 7.369 |
| 5. 가구소득 | .036 | .640 | .036 | .636 | .192*** | 3.892 |
| 6. 이전 직업1 | -.021 | -.308 | -.122 | -1.812 | .008 | .139 |
| 7. 이전 직업2 | .014 | .234 | -.074 | -1.234 | .069 | 1.316 |
| 8. 가족접촉도 | -.026 | -.528 | -.103* | -2.064 | .183*** | 4.196 |
| 9. 사회적 관계망 | .038 | .794 | -.054 | -1.142 | .137*** | 3.301 |
| 10. 성역할태도 | | | .221*** | 4.647 | .001 | .017 |
| 11. 가사노동분담 | | | | | -.093* | -2.200 |
| R ² | .062 | | .090 | | .310 | |

주: * p< .05, ** p< .01, *** p< .001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2=.310$).

이러한 변인 중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본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노인의 성역할태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003$). 오히려 노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분담을 거쳐 심리적 복지감에 미약하나마 부적인 간접적 영향($.221 \times -.093 = -.020$)을 미치고 있었다. 즉, 오히려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미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가사노동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가사노동분담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다섯 번째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beta=-.093, p<.05$),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통제한 후 가사노동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8〉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결과 (여성노인)

| | 성역할태도 | | 가사노동분담 | | 심리적 복지감 | |
|------------|---------|--------|---------|--------|---------|--------|
| | β | t | β | t | β | t |
| 1. 연령 | -.147* | -2.375 | .182** | 3.016 | -.022 | -.391 |
| 2. 교육수준 | .036 | .483 | .117 | 1.625 | .049 | .740 |
| 3. 건강상태 | .043 | .664 | .120 | 1.941 | .326*** | 5.769 |
| 4. 가구소득 | .032 | .443 | .065 | .932 | .195** | 3.077 |
| 5. 이전 직업1 | .073 | 1.108 | -.127* | -1.986 | -.042 | -.720 |
| 6. 이전 직업2 | -.016 | -.262 | -.051 | -.844 | .083 | 1.514 |
| 7. 가족접촉도 | -.135* | -2.025 | -.075 | -1.161 | .147* | 2.498 |
| 8. 사회적 관계망 | .051 | .815 | -.192** | -3.180 | .115* | 2.073 |
| 9. 성역할태도 | | | .222*** | 3.744 | .035 | .623 |
| 10. 가사노동분담 | | | | | -.075 | -1.331 |
| R^2 | .051 | | .147 | | .275 |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결과 (남성노인)

| | 성역할태도 | | 가사노동분담 | | 심리적 복지감 | |
|----------------|---------|--------|---------|--------|---------|--------|
| | β | t | β | t | β | t |
| 1. 연령 | -.103 | -1.299 | .014 | .177 | .052 | .757 |
| 2. 교육수준 | .089 | .828 | .094 | .869 | .080 | .857 |
| 3. 건강상태 | .006 | .074 | .063 | .799 | .308*** | 4.540 |
| 4. 가구소득 | .053 | .564 | .022 | .235 | .196* | 2.424 |
| 5. 이전 직업1 | -.132 | -1.422 | -.032 | -.341 | -.054 | -.672 |
| 6. 가족접촉도 | .142 | 1.828 | -.111 | -1.420 | .244*** | 3.587 |
| 7. 사회적 관계망 | .037 | .487 | .158* | 2.105 | .201** | 3.050 |
| 8. 성역할태도 | | | .227** | 2.988 | -.055 | -.812 |
| 9. 가사노동분담 | | | | | -.141* | -2.093 |
| R ² | .057 | | .100 | | .331 | |

주: * p< .05, ** p< .01, *** p< .001

우선 여성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노동분담 수준은 심리적 복지감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beta = -.089, p > .05$). 즉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는,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그러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남성노인들만을 대상으로 가사노동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노인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beta = -.141, p < .05$).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던 것은 남성노인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표 10>과 <표 11>을 통해 성별을 통제한 후, 남녀노인별로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의 일치 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의 일치 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나 또는 남성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를 검토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녀노인 모두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할수록 심

리적 복지감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beta=.138$, $p<.01$; 남성노인의 경우 $\beta=.159$, $p<.05$).

〈표 10〉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간의 일치 여부와 심리적 복지감 (여성노인)

| |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 여부 | | 심리적 복지감 | |
|--------------------------|----------------------|-------|---------|-------|
| | β | t | β | t |
| 1. 연령 | -.033 | -.518 | -.034 | -.624 |
| 2. 교육수준 | -.033 | -.427 | .045 | .694 |
| 3. 건강상태 | .073 | 1.101 | .307*** | 5.517 |
| 4. 가구소득 | .001 | .019 | .190** | 3.036 |
| 5. 이전 직업1 | .020 | .287 | -.034 | -.591 |
| 6. 이전 직업2 | .042 | .637 | .081 | 1.487 |
| 7. 가족접촉도 | -.022 | -.320 | .154** | 2.653 |
| 8. 사회적 관계망 | -.057 | -.883 | .139* | 2.560 |
| 9.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의 일치 여부 | | | .138** | 2.645 |
| R^2 | .011 | | .316 | |

주: 1) * $p<.05$, ** $p<.01$, *** $p<.001$

2)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일치여부는 일치안함=0, 일치함=1로 재부호화함

〈표 11〉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간의 일치 여부와 심리적 복지감 (남성노인)

| |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일치 여부 | | 심리적 복지감 | |
|--------------------------|----------------------|--------|---------|-------|
| | β | t | β | t |
| 1. 연령 | -.147 | -1.797 | .082 | 1.190 |
| 2. 교육수준 | .043 | .390 | .052 | .559 |
| 3. 건강상태 | .047 | .576 | .291*** | 4.282 |
| 4. 가구소득 | -.072 | -.744 | .200 | 2.461 |
| 5. 이전 직업1 | -.016 | -.169 | -.036 | -.444 |
| 6. 가족접촉도 | -.098 | -1.228 | .263** | 3.895 |
| 7. 사회적 관계망 | -.068 | -.875 | .186** | 2.850 |
| 8.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의 일치 여부 | | | .159* | 2.433 |
| R^2 | .043 | | .330 | |

주: 1) * $p<.05$, ** $p<.01$, *** $p<.001$

2)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일치여부는 일치안함=0, 일치함=1로 재부호화함.

요약하면, 여성노인들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나,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남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분담 정도와 일치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노인들과 달리 가사노동분담 여부가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 8>과 <표 9>를 통해 규명되었던 가사노동분담이 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사실과 <표 10>과 <표 11>을 통해 밝혀진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할수록 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남성노인들의 성역할태도는 노년기 이전의 남성 및 여성노인과 비교하여 전통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다수의 남성노인들이 전통적인 형태의 성역할분담을 실천한다면, 즉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한다면, 그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노인들에게 실제 생활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들의 가사노동분담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감소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남성들이 노후에 아내의 강요나 권유 혹은 아내의 건강상의 이유 등의 외부적 요인에 떠밀려 비자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는 가사노동참여는 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데에는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 등 남성노인 주변 사람의 영향이 클 것이다. 만일 어떤 남성노인이 주변의 비교집단보다 자신이 가사노동에 더 참여한다는 것을 안다면, 혹은 자신만이 주변 사람과는 달리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알게 된다면, 그는 주변집단과 심리적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우울도를 증가시키고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등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할 개연성이 크다. 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자원이론(resource theory)¹⁸⁾에 근거한 것이다. 은퇴 전과 비교했을 때, 은퇴 후의 남성노인들은 대체로 가정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노인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의 빈약한 자원을 보상하는 의미의 가사노동분담은 남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18) 자원이론은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부부중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Blood and Wolfe, 1960).

상황은 남성노인들에게 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여,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저하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여성노인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가사노동을 분담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미약하게나마 낮아진다. 본 조사 결과 여성노인의 성역할태도가 남성노인보다 평등지향적인 편이므로 어느 정도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기대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성의 영역은 바깥일이라는 생각 또한 여성노인의 의식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공유 자체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가사노동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한국사회의 남성노인은 가부장적 성별분업 의식이 강하므로 비록 은퇴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그들이 집안수리나 쓰레기 버리기, 못 치기 등 가사노동 중에서도 비교적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참여가 높다고 알려진 일에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반복적이고 지겹고 단조로운 가사노동이라 할 수 있는 밥짓기나, 반찬 만들기, 그리고 빨래하기 등에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표 4> 참조). 여성노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여성노인들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화된 가부장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남편의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불만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노인들의 삶은 젊어서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줄곧 가사노동 전담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양한 통제변인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제시된 <표 7>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통제 변인들 중 건강상태는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eta=.317, p<.001$).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사노동분담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105 \times -.093 = -.010$)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간접적 영향보다는 건강상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통제 변인들 중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alpha = .001$ 이상의 수준에서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는데($\beta=.192$), 이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짐을 보여주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음을 말해준다. 가족접촉도는 $\alpha=.001$ 이상의 수준에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eta=.183$). 가족과의 교류가 빈번할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녀나 형제(또는 자매)와의 잦은 교류는 자원을 얻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노년기의 역할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접촉도는 가사노동분담을 거쳐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03 \times -.093=.010$).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네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망이다($\beta=-.137, p<.001$). 이웃이나 친구, 종교단체 및 자발적 봉사단체 등의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많은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역할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외부사회와 통합된 느낌을 주고, 이것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토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PWB)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각각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을 선정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이전 직업, 가족접촉도 및 사회적 관계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들의 성역할태도는 본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가사노동분담을 거쳐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가사노동분담의 수준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현상은 남성노인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노인들과는 달리 남성노인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할수록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인들은 건강상태, 가구소득, 가족접촉도 및 사회적 관계망 순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성역할태도는 평등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부 가구의 가사노동수행은 대부분의 가사노동 영역에서 아내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남편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많았던 가사노동'에 아내는 '비교적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온 가사노동'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수준이 일치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부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남성노인들의 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노인세대들은 일부 서구사회의 노인들이나 젊은 세대에서 보여지는 바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적 요인, 예컨대 아내로부터의 권유 및 압력이나 아내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사노동분담이 남성노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또한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영향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는 많은 주변 사람과의 괴리감을 경험할 것이므로 그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노후의 자원동원 부족도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동원 부족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사노동분담은 남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도 남성노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깊게 내면화된 한국의 노인여성들은, 그들이 비록 남성노인들보다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의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의 분담여부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들 속에 가사노동분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성노인들보다 여성노인들이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노인여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경향이 일치할수록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평등한 성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노인여성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2)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가사노동분담이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또한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의 사회적 상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1940년 이전에 출생하여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1960년대 이전에 성인이 된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시점이며, 이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도성장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의 성역할분업도 가속화되었는데, 남성은 산업의 역군으로 경제개발의 선두에 서고 여성은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성역할분업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¹⁹⁾

당시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여성 교육은 남녀 평등적 교육보다는 현모양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다.²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성역할태도나 가사노동분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노인들의 성역할태도나 가사노동분담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즉 한국사회 노인세대들이 살아온 사회적 상황들이 오늘날 그들의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 행위 및 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평등적인 성역할 수행이 실현될 조건이 어느 시기보다 잘 갖추어진 노년기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별다른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표본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비확률표집인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 노인들의 가사노동분담을 고찰함에 있어 은퇴 전과 은퇴 이후의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은퇴 전의 가사노동수행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관찰하였다면, 과거와 현재의 가사노동수행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가사노동수행 양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변화하는 노인의 성역할 수행을 고찰하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19) 이박혜경(1999)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전업주부'의 개념이 생겨났으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위 '스위트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20) 실제로 당시의 여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현모양처',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슬기로운 여성'과 같은 것이었다.

참고문헌

- 구지순 (1990), “한국여성노인: 사회세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8: 84-115.
- 김태현·전길양 (1997),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1.
- 김현미 (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16(1): 37-64.
- 변화순 (1999), “노인의 부부관계,”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부산광역시 (2002),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신화용·조병은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이미숙 (1996),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공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41-69.
- 이박혜경 (1999),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가족과 결혼,” 《새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 이신숙·이경주 (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1): 1-13.
- 이정아 (1997), “부산시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1982),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서혜수·정성덕 (1984), “노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4: 44-52.
- 장상희 (1991), “성역할 사회화와 남녀사원간의 업무관계 만족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3(1): 1-28.
- _____ (1999),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 세대별 분석,”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사회조사연구》 14: 75-108.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학회지》 22(2): 91-102.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Andersen, M. L. (2000),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5th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lood, R. O. Jr. and D. M. Wolfe (1960), *Husband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Macmillan.
- Baruch, G. K. and R. C. Barnett (1986), "Rol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 J. Crosby (ed.), *Spouse, Parent, Worker: on Gender and Multiple Role*. Yale University Press, 63-73.
- Bryant, F. B. and J. Veroff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Brubaker, T. H. and C. B. Hennon (1982),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Comparing Dual Earner Dual Retired Marriages," in M. Szinovacz (ed.), *Women's Retirement: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Clark, M. and B. Anderson (1967), *Culture and Aging*. Springfield, IL: C. C. Thomas.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the Social Embeddness of Routin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08-1233.
- Donelson, E. (1977), "Development of Sex Typed Behavior and Self-Concept," in E. Donelson and J. E. Gullahorn (eds.), *Women*. New York: John Willy, 119-139.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ition, New York. Reprinted by permission.
- Hiller, D. V. and W. W. Philliber (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 33(3): 191-201.
- Ishii-Kuntz, M. and S. Coltrane (1992), "Predicting the Sharing of Household Labor," *Sociological Perspectives* 35: 629-647.
- Keating, N. C. and P. Cole (1980), "What do I do with him 24 hour a day? Changes in the Housewife Role after Retirement," *Gerontologist* 20: 84-89.
- Keith, P. M., C. D. Dobson, W. J. Goudy, and E. A. Powers (1981),

- "Older Men: Occupation,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volve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Issues* 2: 336-349.
- Kluwer, E. S., J. A. M. Heesink, and E. Van de Vliert (1997),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58-969.
- Lawton, M. P. (1983),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 People," *The Robert W. Kleemeier Memorial Lecture*, 249-357.
- Mirowsky, J. (1985), "Depression and Marital Power: An Equity Mod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557-592.
- Okun, M. A. (1987), "Life Satisfaction," in G. L. Maddox (ed.),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339-401.
- Pina, D. L. and V. L. Bengtson (1993),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Wife's Happiness: Ideology, Employment, and Perceptions of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01-912.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 Ross, C., J. Mirowsky, and J. Huber (1983),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
- Scanzoni, J. and G. L. Fox (1980), "Sex Roles, Family and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43-756.
- Stevens, D., G. Kiger, and P. J. Riley (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514-527.
- Szinovacz, M. (1980), "Female Retirement: Effect on Spousal Role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 1: 423-440.
- Umberson, D. and W. R. Gove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99-1012.
- Vinick, B. H. and D. J. Ekerdt (1992), "Couple View Retirement Activities: Expectation versus Experience," in Szinovacz, M., D. J. Ekerdt, and B. H. Vinick (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Sage, 129-144.